

영화 [아가씨]의 악인형 분석

Character Analysis of the Movie “THE HANDMAIDEN”

정문권

배재대학교 한국어문학과

Moun-Kwon Jeong(moun@pcu.ac.kr)

요약

본 연구는 영화 [아가씨]의 주요 등장인물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 [아가씨]의 네 캐릭터는 모두 ‘실존’을 보았고 악인형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코즈키와 히데코는 라캉의 정신 분석 방법론에 의해 각각 전형적인 도착증, 강박증 증상을 보였다. 반면 숙희와 고판들은 범죄 환경 속에서 실존에 직면한 성장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신 분석 방법론으로 분석해 가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PCL-R 진단 항목을 바탕으로 숙희와 고판들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구조 분석을 병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코우즈키는 사디스트이며 히데코는 강박증자, 숙희는 반사회적 생활 방식을 가졌지만 정상적인 감정적 범주에 속해있다고 보았으며 고판들은 소시오패스이며 잠재적인 사디스트의 기질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 중심어 : | 영화 아가씨 | 사회병질자 | 악인 | 사디스트 | 도착증 | 강박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character characters of the movie [THE HANDMAIDEN]. All four characters in the movie [THE HANDMAIDEN]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ll have seen ‘the Existence’ and have the factors behind the villainous figure.

Kozuki and Hideko had clear and typical symptoms, have been diagnosed as a structural layer of perversion and neurosis by Lacan’s psychoanalysis Methodology. On the other hand, since Sook-hee and Ko-pandol have the nature of being a criminal, they have long been faced up to the existence. It was difficult to approach to the structural layer of psychoanalysis Methodology. Therefore, the PCL-R diagnosis used to analyze the personality type of Sook-hee and Ko-pandol and add structural analysis again. As a result, Kouzuki had an Sadist, Hideko had an obsessive compulsive and Sook-hee had an anti-social lifestyle, but she was in a normal emotional category. It was noted that the Ko-pandol was a potential Sadist and part of a sociopath.

■ keyword : | THE HANDMAIDEN | Sociopath | Villain | Sadist |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 Obsessive-compulsive Neurosis |

I. 서론

이 영화는 4백만 명 초반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

객 동원 성적에 비하면 비평계의 관심과 세간의 이슈화
에 성공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슈화된 부분은 대체
적으로 여성주의, 동성애, 각색에 대한 부분이었다[1-4].

* 본 연구는 2018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접수일자 : 2019년 01월 02일

수정일자 : 2019년 01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1월 08일

교신저자 : 정문권, e-mail : moun@pcu.ac.kr

그러나 이 영화가 일반적인 로맨스 스릴러물에 비해 더 강렬하고 선명한 인물유형을 보여주는 점 그리고 그들 모두 문제적인물이라는 점이 논의될 만하다. 한 작품 안에서 정신병적 인물들, 범죄적 인물들로만 짜인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문제적 인물인 악인형을 연구하는 데는 적절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고전의 인물형 연구에서 그러하듯 서사에서 구조주의적 연구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인물 유형을 도출해내는 방식이 아니고 영화 속 인물의 정신 분석을 통해 정신병, 도착증, 신경증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 인물형인지를 판단해 내는 것이[5] 1차적 목표이다. 이를 통해 편집증자, 도착증자 악인형으로서의 사디스트, 강박증자, 히스테리 증자 등의 증상별 유형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가학 도착증자인 사디스트는 악인형으로서의 전형성이 있지만 강박증자, 히스테리 증자는 악인형으로 특성에 걸맞지 않는 점도 있다.

전문적인 범죄자들인 고판돌(후지와라 백작)과 속회(타마코)의 정신분석은 라캉의 정신위상학적 접근으로만 인물유형을 잡아내기 힘들 것으로 보아 반사회적 성향을 구분 짓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의 개념들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화 [아가씨]의 문제적 인물유형이 영화의 다양한 인물 유형군 중 한 전형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코우즈키-사디스트

코우즈키의 가학 도착증에 대해 언급하기 이전에 도착증의 원인이며 대상이 되며 모든 의미와 언어가 기원하는 대타자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우즈키를 둘러싸고 있는 영화 속 세계가 코우즈키 증상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배경으로서의 전체주의는 구성원들의 도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국가라는 질서와 명령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명령이 부당한 죽음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목숨을 기꺼이 제공해야 하는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구조이다. 국가가 모든 의미의 기원이 되는 즉 대타자가 되는

구조이다.

‘열등한’ 식민지 역관에서 일본에 충성하는 2등 국민으로 그리고 1등 국민의 작위와 언어 능력까지 획득하는 과정의 고통을 코우즈키는 피학대 도착증자로서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라캉은 피학증이 먼저이고, 가학증은 피학증에서 유래한다”고 말했듯 그의 피학적 증상은 가학적 증상으로 전환된다.[6] 그 중간적 징후는 코우즈키가 추앙해 마지않는 일본, 일본인 수집가들을 대상으로 위본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기만적인 행위를 하거나 선정적인 낭독회 과정을 거쳐 남성들을 판타지를 자극해 서적의 가치를 높여 이익을 취하는 태도에서부터 대타자에 대한 변화된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는 전체주의의 순수한 추종자, 또는 피학적 도착증자가 아닌 기회주의자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인 것이다. 이 균열 속에서 실존적 고통에 대한 전가, 또는 전복이 나타나고 피학적 도착증자는 가학적 도착증자로 변신해 가는 것이다. 가학적 도착증자 코우즈키 인물형의 본질은 저택의 구조의 상징성과 저택 안에서의 그의 행동양상을 통해서 더 확연히 파악할 수 있다.

코우즈키 저택의 구조는 프로이트식의 정신 위상학과 자연스러운 대비를 이룬다. 영국 양식과 일본 양식이 결합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양식도 일식도 아닌 그로테스크한 건물이 되어버린 본관은 제국주의의 본가들에 아부하는 코우즈키의 간교한 태도를 상징하는 건물이며 동시에 생활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에고(Ego)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으며 동시에 보다 확연한 상징성을 띠는 곳은 서재다. 도서관이 상징하는 지와 이성의 형이상학적 가치와 엄격함으로 보건데 슈퍼에고(Super Ego)의 영역으로 보아야 타당하나 격식에 은폐되어 있는 음란 서적들, 엄숙한 낭독회의 행위 속에 은폐된 음란 행위의 양상으로 보아 서재를 슈퍼에고(Super Ego)의 권위 뒤에 은폐된 음란함, 즉 ‘초자아의 음란성’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드(Id)의 공간인 지하실과 맞닿아 있어 이건축 구조가 드러내고 있는 바가 매우 노골적이다.

코우즈키의 도착적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저택, 그 울에 가두어진 사람들은 노예제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 코우즈키는 가족, 하인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고

며 청부를 통해 일본에까지도 그의 위력이 미친다.

코우즈키는 일본백작의 신분을 얻기 위해 몰락한 귀족여인과 결혼한 것을 넘어서서 그녀를 이익의 수단으로 격하시킨다. 일본에 대한 그의 경배가 일본여인에 대한 착취와 학대로 이어지는 것은 도착증자의 대상에 대한 양극(兩極)적 행위 양상이기도 하다[7]. 그녀의 조카도 같은 방식으로 착취하는 행태를 보였다. 착취의 양상뿐만 아니라 착취 대상으로 대상화해가는 과정이 가학 도착적이다. 음란서적 낭독 훈련을 시키는 과정은 육체적 학대와 ‘정신병원’에 대한 공포를 수단으로 한다. 공포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소유 대상인 아내의 탈출을 대하는 코우즈키의 대응은 극단적이다. 사물화 된 대상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모의 죽음에 궁금증을 갖고 의심하는 어린 히데코에게 고문과 살인이 자행되는 지하실이라는 실재를 보여줌으로서 지배의 공포 수단을 더한다. 부가적으로 지하실 살인의 진실은 히데코의 경험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재구성된다. 그러나 코우즈키의 응징이 살인이라는 결과적 해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코우즈키 집안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살인행위에 살인행위 그 이상의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도착증자 코우즈키가 향락(享樂), 즉 주이상스(Jouissance)를 향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히데코 이모의 죽음의 진실은 부분 신체와 제본도구를 빙자한 고문도구들로 가득 찬 지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코우즈키의 서재에서 벌어지는 낭독회가 발굴, 제본, 전시, 판매의 성실한 경제활동이듯[8] 코우즈키 부인의 살해 과정 또한 고서적의 수집과 낭독회의 경제활동과 다르지 않다. 이 활동의 의미는 고판들의 고문장면을 통해 사후적으로 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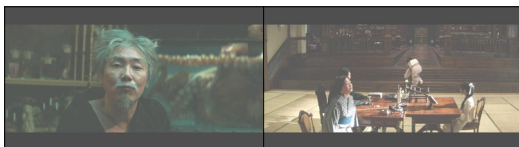


그림 1. 실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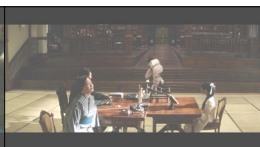


그림 2. 대상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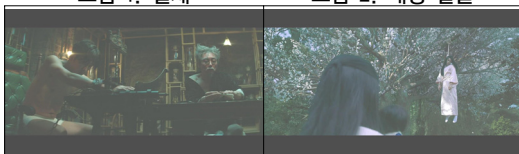


그림 3. 제본



그림 4. 전시

성 된다.

[그림 1]에서 보듯 실재(實在)의 공간은 지하실로 존재한다. 도착의 공간인 지하실에서 서적 제본과 인간 조련은 유비(類比)관계에 있다. [그림 2]과 같이 정신의 미약함, 불완전함으로 코우즈키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려는 부인은 손에 넣힌 희귀본으로 비유될 수 있다. [그림 3]은 코우즈키가 고판들을 제본도구로 고문하는 장면인데 이는 여지없이 책의 제본 과정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코우즈키가 자기의 아내를 어떤 식으로 살해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의 시체를 내건 행위는 낭독회와 같은 구도를 만드는 것이며 내용에 있어서도 남성 판타지를 자극해 서적의 잉여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아내의 영혼을 나무에 이식해¹ 벗어나는 화려한 개화를 이뤄낸 것이다.

코우즈키는 희귀서적 수집, 제본행위를 통해 잉여가치를 산출하는 일체의 과정을 납치, 폭행, 살인과 같이 심리적 충동들을 만족시키는 행위와 도착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이렇듯 코우즈키의 가학 도착증은 대상을 사물화하여 소진시키는 도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저택은 그의 정신적 구조를 반영하여 구조화되고 작동한다.

영화의 말미에 실제 구현되는 고판들에 대한 가학행위 또한 코우즈키 부인의 살해와 같은 형식, 의미를 담고 있지만 과정은 약간 다르다. 히데코의 대체물인 고판들에 대한 가학 행위만으로는 완전한 주이상스(Jouissance)가 이루어지지 않자 코우즈키는 고판들에게서 히데코에 관한 성적 체험, 판타지의 구술을 요구한다. 하지만 고판들은 코우즈키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 전시를 통한 잉여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그의 지하실에 은밀히 전시할 목적으로 고판들의 성기를 절단하려 든다. 여기에서 히데코의 대체물을 가공하려는 코우즈키와 자신의 목숨 이상의 가치로 여기는 성기를 지키려는 고판들의 남성 판타지가 충돌하게 된다. 고판들은 자신의 판타지를 지키기 위해 자살이라는 폭력을 선택한 것이다. 이 폭력의 칼날은 고판들 자신에게로만 향하지는 않는다. 코우즈키

1 코우즈키는 “저 나무가 (이모의) 영혼을 빨아들었다.”(박찬우, 2016: 1:11 ‘30”)고 말한다[8].

의 부주의를 과고든 고판들의 수는 담배연기에 중독된 코우즈키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목숨 이상의 부분 신체, 조악한 남성 판타지를 지켜낸 고판들은 죽음의 목전에 히데코와 숙희를 태우고 코우즈키로부터 탈출하던 기억을 마지막 판타지로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 허위에 찬 남성 판타지를 비웃고 공격하는 히데코의 행위는 일면 반발과 적대적 행위로만 이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코우즈키의 지하실로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코우즈키의 충동을 완성시켜주는 결과적인 협력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심리적 육체적 포로였던 히데코의 조력 행위는 히데코의 정신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III. 히데코 - 강박 신경증자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대저택의 영애 '아가씨'의 전형으로 보이던 히데코가 영화의 2부에서 숙희의 나레이션에 따르면 '나쁜 년'으로 불린다. 영화의 1부에서 히스테리증자의 전형적인 질문 "당신(남자)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히데코는 숙희에게 "남자가 바라는 게 뭐야?"(박찬욱, 2016: 42' 37") [8]라는 식으로 질문한다. 타자의 요구와 의도에 매달리는 히스테리증자의 수동적인 역할에 충실한 것이다. 물론 캐릭터가 변한 2부에서는 히스테리 증자라는 거짓 역할을 빌려 의도적으로 숙희를 유혹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도착증자 코우즈키가 교육, 또는 조교(調教)를 통해 대상화하려던 히스테리 증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히스테리는 주체의 결여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 강박증과 구분된다.

1부의 성격으로 보였던 히스테리 신경증자, 또는 피학적 도착증자가 아니라면 히데코의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강박증이다. 저택의 초월적 법의 지위에 있는 코우즈키의 억압과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지하실의 실존적 현실을 대면한 히데코는 최소한 코우즈키를 위시한 저택 사람들 앞에서는 순종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구체적 증상의 분석으로 들어가보면 구조적 측면에서 언어에 대한 특이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숙희가 '아가씨는 일본본인데 왜 일본말을 안 쓰'

냐고 묻자 "지긋지긋해 이모부가 읽으라는 것이 다 일본말이거든"(박찬욱, 2016: 15' 20") [8]이라고 대답한다. 모국어(대타자) 사용에 회의적일 정도로 히데코에게 있어 낭독회의 음란함으로 오염되어 있는 일본어에 대한 회의와 거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폭압적이지만 한 대타자에게 자신의 욕망을 물을 수도 대답을 기대할 수도 없다. 대타자, 남성 권력들은 음란한 남성 판타지의 허상을 욕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모부의 욕망이 실현되는 지하실, 낭독회의 신사들을 통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적 판타지에 오염된 남성으로서의 고판들의 진술은 히데코가 환멸을 느끼는 극단적으로 왜곡된 남성판타지를 보여준다.

해치지 않아요. 책에서 많이 봤잖아요. 여자들은 사실 억지로 하는 관계에서 극상의 쾌락을 느끼죠.(박찬욱, 2016: 2:02' 10") [8]

이러한 진술에 앞서 히데코가 고판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 낭독회에서 읽은 사드풍의 음란서적 내용 중 일부뿐이었다. 히데코가 예측했던 대로 고판들은 반응했고 이런 식으로 뻘하고 진부한 남성들의 욕망에 대해 히데코가 관심을 갖거나 의존할 리가 없는 것이다. 무기력한 대타자를 무대에서 제외시키고 스스로의 욕망의 진실을 찾아보려는 태도로 인해 히데코는 존재불안의 강박증적 증상들을 갖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이모의 죽음에서 비롯된 액살에서 대한 집착과 정리벽, 장갑, 인형에 대한 패티시즘적 집착 등을 사례로 볼 수 있다.

히데코가 침상에서나 목욕할 때까지 줄곧 들고 다녔던 인형은 숙희와의 정사과정에 침상에서 밀려난다. 그 뒤로 히데코에게서 인형을 찾아볼 수 없다. 존재불안의 강박증자 히데코의 대상이 숙희로 전환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숙희는 이제 히데코에게 존재불안을 줄여주는 하나의 오브제가 되는 것이다.

히데코가 코우즈키를 기만하면서도 코우즈키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코우즈키의 욕망을 대리 실현하려 하는 것도 강박증자의 소극적인 도착증적 증상, 즉 도전의 적극성이 빠진 강박증자의 도착증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원인-지하실의 실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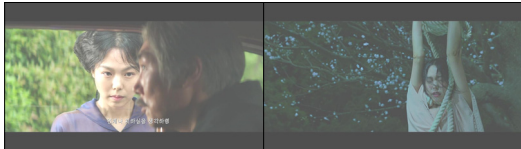


그림 6. 결과-이모의 실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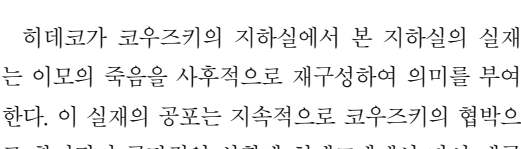


그림 7. 원인-코우즈키 협박 속의 실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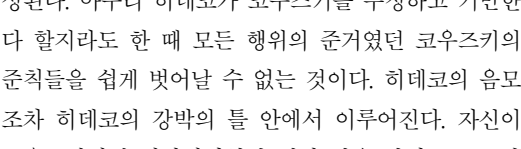


그림 8. 결과-히데코의 실재 재구성

히데코가 코우즈키의 지하실에서 본 지하실의 실재는 이모의 죽음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미를 부여한다. 이 실재의 공포는 지속적으로 코우즈키의 협박으로 환기되며 극단적인 상황에 히데코에게서 다시 재구성된다. 아무리 히데코가 코우즈키를 부정하고 기만한다 할지라도 한 때 모든 행위의 준거였던 코우즈키의 준칙들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히데코의 음모조차 히데코의 강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신이 코우즈키에게 기만적이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판들을 이중의 음모로 기만한다. 아울러 저택을 탈출할 경우 자신이 대면해야 하는 지하실의 실재를 고판들로 하여금 대면하게 만든다. 고판들은 히데코의 대체물일 뿐이며 코우즈키의 낭독회 매커니즘을 히데코가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고판들을 코우즈키에게 선물로 보낸 것은 히데코가 코우즈키의 욕망을 대리하여 충족시켜 준 것이다. 결국 히데코의 음모는 강박증자 특유의 반복강박적 형태를 띠고 있는 셈이다.

앞서 보았던 코우즈키의 도착적 행위의 반복과 강박증자 히데코의 강박적 반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반복된다는 측면, 경우에 따라서는 은유적으로 재구성되어 반복된다는 면에서 서로 같으나 도착증자는 충동에 의한 환상을 실제로 실현하는 반면 강박증은 환상의 직접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다르다. 코우즈키는 낭독회의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을 아내와 고판들에게 직접적으로 구현하여 충동을 실현했지만 히데코는 충동을 직접적으로 실현하지 않고 고판들을 코우즈키에게 보내 대신 하게 하는 데서 차이가 확연하다.

IV. 고판들과 숙희-소시오패스와 불량소녀

고판들과 숙희는 인물 설정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노비, 도둑의 자식으로 태어난 천한 신분, 더 나은 것도 없는 성장환경과 현재 범죄자라는 측면이다. 그들이 사회의 소외된 지점에서 인간의 실존, 실재와 대면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실존의 국면에서 도덕률과 양심, 형이상학적 관념 등은 생존 본능의 강력한 힘에 무기력해지기 마련이다. 근대의 하층민들 주변인들의 삶의 수준이 극도로 비참했을 것임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고판들과 숙희의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 성격에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으나 같은 범죄자이면서도 고판들과 숙희의 인물 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숙희와 고판들 범죄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평가는 부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숙희는 고판들의 범죄 음모에는 가담하고 있지만 사랑 운운하는 고판들의 범죄 계획을 들으며 “사랑? 사기꾼이 사랑을 아냐?”하는 식으로 고판들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고판들의 허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판들 역시 히데코와 공모하며 하는 진술 속에 “숙희에게 기회 될 때마다 패물이나 좋은 옷을 슬쩍슬쩍 보여주세요. 어미로부터 물려받은 물욕이 그 아이를 더 어리석게 만들 테니까요.”(박찬욱, 2016: 1: 33'05”)[6]와 같이 숙희의 태생에서 비롯한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고판들의 숙희에 대한 판단은 숙희가 복순에게 어머니의 생애 마지막 모습에 대해 묻는 대화 속에서 그 부정성이 중화된다. 복순의 전언에 의하면 숙희의 어머니는 숙희를 낳고 죽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죽어갔다고 한다. 이 전언은 숙희의 자궁심이였다. 대도의 딸이라는 것에 대한 자궁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한 자궁심이였다. 히데코가 자신의 생모가 자기를 낳다가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하자 숙희는 히데코의 죄책감과 슬픔에 공감하여 ‘태어나는 게 잘못된 아기는 없’다고 위로한다. 숙희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물욕보다 존재의 존중과 탁월한 공감능력이라는 축복이었다. 아울러 기질적 심성이 나쁘지 않다. 아래는 왜곡된 숙희의 사유방식을 보여주는 독백이다.

①일찍이 다섯 살 적에 진짜 돈 가짜 돈을 구별할 줄 알았고 이 ②구가이에게서 가짜 도장 파는 법을 ... ③ 우리는 이것들을 씻기고 입혀서 일본에 팔아넘긴다.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가만두면 굶어죽을 것들을 부차 집 도련님, 아가씨로 만들어 주다니. ... ④나도 쫓이 나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얘기들을 다 먹여줄 텐데... (박찬욱, 2016: 8 '30") [8]

물론 왜곡된 사회인식 즉, ①~③와 같은 속물적인 사고방식과 범죄기술을 쓸 만한 기술로 생각하며 유아매매를 보람찬 일로 생각하는 문제적 사고는 환경요인이 주요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짚어볼 것은 아가씨들에 대한 속회의 진심과 애정이다. ④에서처럼 모성애적 감정을 보이는 것은 속회의 기질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껏 씻기고 입힌 것들 중에 이 만큼 이쁜 것이 있었나?”(박찬욱, 2016: 27 '47") [8]라고 하며 히데코에 대해 감정이입하는 장면에서 속회의 모성애는 보편성을 갖고 확대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물욕보다 사랑에 대한 감정, 이타적 감정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들도 있다. 더욱이 속회는 히데코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면서 물욕으로 대표되는 자기가 꿈꾸어오던 삶과 히데코에 대한 연민과 사랑 사이에서 내면적 갈등이 커져간다.

나는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아주 부자가 되어서 아주 아주 먼 항구에 가고 이름도 모르는 것을 먹고 반짝거리게 하는 것을 잔뜩 하고 그리고 히데코 생각을 하지 않고 히데코 생각을 절대... (박찬욱, 2016: 40 '10") [8]

물욕을 포기하기 않겠다는 자기 암시적인 다짐들로 보이지만 이미 속회의 내면에서는 고관들의 음모에 히데코가 포섭되는 데 대해 견딜 수 없는 질투의 감정과 정의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시작된 것이다. 히데코를 절대 생각하지 않겠다는 반복적 진술은 매우 역설적인 심리를 보여준다.

결국 자살을 하려는 히데코에게 일련의 음모를 고백한다. 이 고백은 고관들이 본 범죄소굴의 '쥐새끼 같은

속회'라는 판단이 모두 왜곡된 것임을 증명한다. 부연하자면 속회는 범죄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어서 사회를 바라보는 문제적 인식, 반사회적 성향을 가졌을 뿐이지 정서적으로 매우 정상적이다. 히데코가 어머니가 사망한 출생에 대해 죄의식을 갖는 데 대해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모습, 아가씨들에 대한 모성애와 히데코를 자기의 아가씨처럼 동일시하여 아끼는 모습, 자신의 물욕과 성공을 포기하고 히데코를 지키려는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보건데 속회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 급격히 사회화 될 수 있는 인물형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고관들은 불운한 성장 배경을 통한 왜곡된 사회 인식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기질적 측면을 절대적 대조 대상이 아닌 속회와의 대조, 또는 라캉의 정신위상학적 관점으로만 유추해 가기 힘들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판별 도구인 PCL-R의 항목들을 바탕으로 [9][10] 고관들의 극중의 면모들을 비교 대조하여 참조할 점을 찾아보려 한다.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은 범법자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서 정제를 거쳐 기질적인 정신병질자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정신병질자는 잠재적인 기질을 바탕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개념을 쓰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따른다. 비전문가가 전문적인 도구인 PCL-R을 사용하는 이상 실효성의 문제는 해소 될 수는 없다. 다만 영화의 인물 분석이기에 설득력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인물유형이 실제 인물이 아니고 극적으로 가공된 인물유형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특이성, 규정에 따른 직접 면담이 아닌 비면담으로 분석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특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1].

PCL-R 테스트의 경우 크게 두 갈래로 공격적 나르시시즘 유형의 항목들, 비정상적 사회생활 방식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극중에서 고관들의 대인관계의 정서적 문제 요인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공격적 나르시시즘 항목들에 고관들의 행동양상을 대입해보는 것에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현란한 말솜씨와 매력, '품위 있는 한 끼 식사에 한 달치 월급을 털어 넣는 것', '가격을 보지 않고 포도주를 주문하는 삶'을 꿈꾸는 매음굴 호객꾼의 과도한 자존감, 사기꾼으로서 거짓말과 타

인을 기만하고 조종하는 능력은 이미 드러나 있다. 히데코에게 폭력적 성행위를 시도했던 예처럼 남성적 판타지의 충동에 의해 움직이고 진실한 사랑과 연민의 감정이 부족한 점도 정서적 문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반사회적 행동과 생활양식도 고관들의 문제적 요소이다. 다양한 범죄력과 아울러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해 전용하는 기생적 삶의 방식, 피상적 매력을 통한 문란한 성생활과 무책임성 등을 주요 문제적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동에 대한 고관들의 통제, 지연 능력은 매우 특이하다. 더욱이 사기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3년간 종이와 책과 그림 공부를 하며 준비하는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성격은 판별 항목 중의 하나인 ‘행동통제력 부족’, 그리고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의 부재’ 등의 항목에 배치된다. 완벽한 전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코패스의 충동적 행동 유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신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배경, 사교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견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소위 성공한 사이코패스의 예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사이코패스와 양심의 유무를 구분해서 소시오패스를 규정한다면[12] 소시오패스 또는 사회 병질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보건태 고관들이 사이코패스라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스스로의 행동통제가 가능한 특이한 유형의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소시오패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의 위상학적 측면에서 보면 고관들은 신경증적 요인보다는 도착증적 요인을 많이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관들 역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경계인이다. 물론 코우즈키와 같이 일본이라는 도착의 대상이 없는 대신 돈이라는 물질적 대상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코우즈키가 도착의 증상이 실현되는 기폭제가 일본의 이름, 작위, 권력과 돈을 얻으면서였고 충동을 실현할 수 있는 저택을 설계했듯 고관들의 경우도 그가 추구하는 돈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 생태계를 만들어 별만큼 갖춰진다면 내재된 도착증이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관들의 경우는 코우즈키 이상의 가학성이 예상된다. 코우즈키는 제본행위의 도착적 전

개가 실제로 이어졌다면 고관들은 인격의 조종, 억압, 성적 폭력과 갈취 더 나아가서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악한 재능이 풍부한 이 젊은 도착증자는 자신의 충동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다양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히데코의 경우 강박증의 증상 이외에 PCL-R 진단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인다. 병적인 거짓말, 남을 속이거나 조종하려는 점, 공감능력이 높지 않고 문제적 행동,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가 부재하는 것 등의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다만 히데코의 경우 속회와 맺는 정서적 교류와 사랑의 교감은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벗어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V. 결론

영화 [아가씨]의 주요 인물 네 명 모두 인간 실존의 일말을 본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모두 악인형의 요인을 갖고 있다. 코우즈키와 히데코는 확연하고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 그를 바탕으로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으로 도착증과 신경증이라는 구조적 층위의 진단이 이루어졌다. 반면 고관들과 속회는 범죄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범죄자 출신이라는 특성 때문에 구조적 층위로 접근하기 어려워 PCL-R 진단을 항목을 사용해 접근하고 다시 구조적 분석을 더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코우즈키는 자신의 충동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를 도착적으로 저택의 구조에 배치하고 서재의 지하에서 실재를 탐닉한다. 실재의 분출은 코우즈키의 감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그를 파멸로 이끈다. 대상을 소진 시키는 가학도착증자의 말로는 스스로의 소진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음란함으로 오염된 모국어와 남성은 대타자적 지위에 있으며 이 지위를 부정하고 기만하는 데서 오는 존재 불안이 히데코의 강박증 원인이 된다. 강박증자 히데코는 절대 도착증자 보호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나 특별한 변수가 발생한다. 속회와 고관들의 등장이다. 실재의 두려움을 실존에서 경험한 속회와 고관들의 등장은 도착증자 코우즈키가 건설한 공포와 억압으로 밀봉된 구조에 균열을 낸다. 그 붕괴된 틈으로 히데코는

탈출할 수 있었으며 대리물로 고관들을 저택으로 돌려 보내 코우즈키의 주이상스를 완성시켜 준 것이다. 결국 간접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강박증자인 셈이다.

도착증자 코우즈키처럼 실제, 실존의 경계를 넘나드는 범죄인들인 숙희와 고관들은 PCL-R 진단을 항목을 바탕으로 한 접근을 통해 비슷한 환경 속의 두 사람임에도 차이를 밝혀냈다. 숙희는 범죄집단 속에서 자라났다는 환경적 측면에서 반사회적 생활양식과 사회 인식의 왜곡이 보이나 공감능력, 모성애, 희생정신, 사랑에 이르기까지 정서적인 면이 매우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사회 병질자로서의 요소가 있으나 급격히 사회화된 인물이다. 고관들은 반사회적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정서적 문제가 심각하나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매우 특이한 유형의 사이코 패스, 또는 소시오패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라깁의 정신분석학적으로 재구해 보건데 고관들은 가학적 도착증을 내재하고 있으며 증상의 촉발요인, 또는 환경이 마련 될 시 증상이 발현되어 가학도착증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연구에 있어서 한계점은 본질적으로 라깁의 위상학적 정신분석 개념과 정신병질자 판별 도구인 PCL-R의 병용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앞에서도 밝혔듯 전문가 도구인 PCL-R 사용에 대한 실효성 문제이다. 더욱이 가공된 인물유형에 대한 비면담으로 분석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도착증자, 강박신경증자가 그러하듯 이미 향간의 상식이 되어 버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개념에 대한 접근이 불가할 수는 없다. 필자는 정신병질자, 사회 병질자의 개념을 문학의 악인형의 하나로 포섭하는 하나의 과도기적 시도로서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남다운, “여성영화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아가씨>와 <비밀은없다>를 보고,” *문학동네*, 제23호, pp.1-13, 2016.

- [2] 민혜영, 박진선, 박무늬, “영화 [아가씨]에 나타난 여성재현 연구,” *씨네포럼*, 제27호, pp.167-204, 2017.
- [3] 조혜정, “영화 [아가씨]의 각색 - 원작소설 핑거 스미스와의 서사적 거리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55권, pp.333-364, 2016.
- [4] 최영미, 조이운, “영화 <아가씨>의 각색에 따른 영화 흥행 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pp.417-425, 2017.
- [5] 이강록, “영화 <아가씨>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한국어문교육*, 제21권, pp.199-224, 2017.
- [6] Dylan Evans, 김종주 역, *라깁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2004.
- [7] 조엘 도르, 홍준기 역, *라깁과 정신분석임상: 구조와 도착*, 아난케, 2005.
- [8] 박찬욱, [아가씨], CJ엔터테인먼트, 2016.
- [9] 박지선, “사이코패스에 관한 대중의 인식과 두려움,” *한국범죄학*, 제8권, 제2호, pp.145-176, 2014.
- [10] 이수정 외, “한국판 Psychopathy Checklist-Revised(PCL-R)의 구성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및성격*, 제23권, 제3호, pp.57-71, 2009.
- [11] Robert D. Hare, *진단명 사이코패스: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이상인격자*, 바다출판사, 2005.
- [12] Paul Babiak, Robert D. Hare, 이경식 역, *당신 옆에 사이코패스가 있다*, 알에이치코리야, 2017.

저 자 소 개

정 문 권(Moun-Kwon Jeong)

정희원



- 1985년 2월 : 배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사)
- 1988년 2월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석사)
- 1995년 2월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관심분야> : 현대문학비평, 현대소설